

# 李 “증오정치 재연 막아야” 尹 “민주당에 국가 못맡겨”

여야 대선후보 마지막 지지 호소

이재명, 경기·서울서 유세 집중  
윤석열, 경부선 보수텃밭 훑어  
홍대광장·서울시청광장 피날레  
심상정, 홍대거리서 마무리

3·9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 한표'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선거 막판까지 박빙 승부가 연출되면서 이들 후보들은 각각 서울과 제주·부산 등지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최후의 유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이날 이 후보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인물론'을 들고 승부의 최대 관건인 수도권, 2030 표심 공략에 남은 힘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당사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가 결정될 중대한 갈림길에서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 왕국,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회,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 정치를 더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유세 전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온천천 앞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역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운동원들과 울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오전에는 여의도 증권가 앞에서 유세를 펼치며 '코스피 5000 포인트 시대' 등 성장상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파주, 인천, 광명을 훑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청라 롯데마트 앞 광장에서 "열에 쫓 사나운, 그러나 힘이 약한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언제나 제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발은 꼭 밟고 있으면서 손은 자유롭게 교류하고 표정은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면서 "이게 바로 외교 아니냐. 그런데 우격다짐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저녁에는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된 촛불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 인근 청계광장에서 서울 집중 유세를 했고, 밤에는 청년층이

밀집한 서울 마포 홍대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고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의 대미를 장식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윤 후보는 경부선 상행선 코스를 타며 '정권교체 열기'를 이어가려 안간힘을 썼다. 윤 후보는 그간 찾지 못했던 제주에서 유세를 시작해 부산과 대구, 대전 등을 거쳐 서울에서 대대원을 마무리했다. 그는 부산 연제구 온천천 앞, 대구 서문시장, 대전 지하철 1호선 노은역에서 차례로 거점 유세를 하며 '보수 텃밭'을 훑었다. 부

산 유세에는 부산 출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함께했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 연제구에서 거점 유세를 통해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감 나랏, 팔 나랏 하면 은행·기업 다 도망간다"고 강조한 뒤 이재명 후보의 '루스벨트'식 경제 부흥책에 대해서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을 본떠 부자들에게 세금 양장 뜯어다가 재정을 투자하고 공공사업을 벌여 경기부양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오전 제주 첫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의 각종 부정부패가 다 폐되고 묻히는 거 보셨죠. 이게 민주당이 죽어가는 것"이라면서 정권 교체 여론을 자극했다. 피날레 유세는 오후 8시 30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했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대표 등이 모두 함께하는 '윙킴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자정까지 청년층이 많은 건대입구역과 강남역 일대를 돌며

투표 독려 캠페인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양강 후보의 틈바구니에 존재감 부각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전 서울 노원구, 강북구에서 유세를 한 뒤 오후에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2030 여성을 겨냥한 유세를 펼쳤다. 이어 심 후보는 저녁 7시부터 홍대 상상 마당 앞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정치권 마지막 지지 호소

3·9 대통령선거 마지막 날인 8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최종 득표전이 치열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협오와 갈등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정치를 이재명 후보는 펼칠 것이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유능한 후보, 준비된 후보, 경제를 살릴 후보, 안정된 후보, 평화로 이끌 후보, 바로 이재명"이라며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의 시대를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열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광주공원에서 광주 국회의원, 시·구의원, 선거운동원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합동 유세를 한다. '민주당 광주 기인지 선거대책위원회 청년 유세단'은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앞에서 직장인들의 투표 참여와 이재명 후보 지지를 독려하며 거리에서 노래하는 이색 유세를 펼쳤다. 이날 계획라

## 민주 "유능한 경제대통령 시대 열어달라" 국힘 "무능한 문재인 정부 꼭 심판해달라"

콘서트에는 프로젝트팀 '이재명을 사랑하는 광주노래진구들'이 참여했다. 또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은 "안철수 지지철회사 모임 200인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에 실망한 시민들이 SNS를 중심으로 모여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투표로 심판해달라"며 "광주를 대한

민국의 실리코넬리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동의한다면 광주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당은 "광주 정치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일방적인 일당 독점이 아닌 경쟁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며 "2030 한 표 한 표의 숫자는 기록에 남아 광주 정치 구도를 바꿀 것이다"고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높은 청년 표심에 구애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젊은 층이 주로 모이는 전남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 정당들도 양당 체제 극복

을 내세우며 진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에서 "양당 정치를 종식하고 진정한 통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확보하는 한 표, 세입자들의 설움을 걷어내는 한 표, 공격받는 여성들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성평등 국가를 만드는 한 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 전남도당도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각각 호소문을 내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1번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유권자에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치열한 접전 상황이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4, 5일 전남의 높은 사전투표 참여 열기를 본

투표로 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이제는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 독주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은 지난 40여 년을 넘겨 민주당을 지지했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일을 안 해도 당선이라는 말은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된 지 오래"라며 "1당 독재의 기술이진 정치 환경에서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만큼은 전남도민들께서 직접 회초리를 들고 지난 40년간 실망감만 안겨준 민주당을 직접 심판해달라"고 했다. 정의당 이보라미 도당위원장(영암2, 도의원)은 "전남도민 여러분 정의당, 당이 작다고 포부가 작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안전한 대전을 위하여 2022년 3월 9일 정의당 심상정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http://www.greenfuneral.kr/

光州市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 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입소문 6선!

1. 호남-88-남해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중 등VIP접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너소사이터 정회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